



교 장 박 옥 철

오늘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어른을 위한 동화 「세 가지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사람의 일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사람의 일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위 질문에 대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최선을 다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외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며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생은 보람된 일생이 될 수도 있고 무의미한 일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루는 나의 일생의 일부분이지만, 오늘 하루가 나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산 사람은 당연히 일주일, 한 달, 일 년, 일생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하루를 소홀히 보내면서도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미래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한 사람의 정해진 삶의 궤적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 입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성실하게 살 때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해성 한 마음 대축제

해성중 · 고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지난 4월 10일 해성 중 · 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다.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 행사는 기념미사, 성모상 축성식, '해성인은 한마음' 축제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행사는 강당에서 열렸는데 주교님께서 직접 미사를 집전해 주셨고, 그 후 삼성문화회관에서는 해성중 · 고, 성심여중 · 고 재학생들과 초대 가수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동문 및 가족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행사를 통해, 해성 동문이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해성인들이 학교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학년 이아주 기자



근속 교사 표창 수여 및 후보축일 행사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강당에서 후보축일 행사가 열렸다. 이날 후보축일행사는 미사 봉헌 및 건진 성사, 그리고 근속 교사 표창 수여가 있었다. 이 날 고등학생 67명이 건진 성사를 받았고, 중학생 건진 성사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또, 근속교사 표창은 중 ·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 30년 근속 1명, 20년 근속 1명, 10년 근속 10명의 선생님들께 수여되었다. 이병호(빈첸시오) 주교께서는 일일이 선생님들의 목에 기념메달을 걸어주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선생님들의 축하 선물과 학생들의 축하 꽃 전달도 함께 이어졌으며, 교사 대표 김희봉 선생님의 답사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신자는 물론 모든 중 · 고등학생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한 뜻 깊은 행사였다.



축하드립니다.

20년 근속 : 최연옥 선생님

10년 근속 : 김희봉, 박현경, 윤소미 선생님

3학년 김남규, 이원모 기자

교사 이동

신임 교사 : 김가람 선생님(영어과)

전임 교사 : 박옥철 교장 선생님 (영어과, 전 성심여고 근무)

김길환 교감 선생님 (수학과, 전 성심여중 근무)

윤소미 선생님 (음악과, 전 해성고 근무)

최승권 선생님 (영어과, 전 해성고 근무)

퇴직 교사 : 이충로 선생님 (영어과)

학생회장단 선거 결과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해성중학교를 이끌어 갈 학생회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회 장 : 정승하 (2학년)

부회장 : 최김민 (2학년), 고윤근 (1학년)



관련기사 -2면



체험학습

제주도로의 즐거웠던 현장체험 학습

- 3박4일의 짧지만 즐거웠던 현장체험 학습을 떠난 2학년들 -

2학년 학생들이 5월 10일에서 13일까지 3박 4일의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떠나 광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주도의 명소들을 둘러보았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간 한라 수목원에서는 제주도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자생 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프시케월드에서는 유리 궁전을 비롯한 나비 박물관, 보석 전시관, 거대한 미로 그리고 유리 장미 정원 등을 둘러보았으며, 4.3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4.3평화공원에서는 제주도에 일어난 슬픈 사건에 대해 돌아 볼 기회를 가졌다. 돌과 흙, 나무, 쇠, 물 그리고 제주 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 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을 테마로 한 돌 문화공원도 둘러보았다. 또한 성산 일출봉 정상에 올라 제주도의 드넓고 푸른 바다와 하늘을 감상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용머리 해안, 하멜 기념관, 주상 절리대, 정방폭포, 약천사, 함덕 해수욕장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여러 명소들도 둘러보며, 3일동안 반 친구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좋은 우정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체험 학습을 재미있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4일 동안의 체험 학습 동안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제주도 바다에 떨쳐 버리고, 남은 학기동안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2학년 김태진, 이지용 기자



1,3학년의 추억만들기

- 3학년 하루나들이, 1학년 수련활동 -

지난 5월 10일 3학년 학생들은 모악산 도립 미술관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다른 학년들과는 달리 3학년은 학교에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체험 장소로 모였다. 모악산 아래의 멋진 풍경과 미술관 건축미의 조화는 졸업사진을 찍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학생들은 가지각색의 포즈를 취하면서 즐겁게 사진을 찍었으며 추억을 쌓았다.

한편 1학년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모악산 유스호스텔로 수련활동을 갔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수련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단합심을 길렀으며 레크레이션과 캠프파이어를 통해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금산사 문화재탐방을 통해서 금산사의 가나간 1,400여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지난날의 아쉬움을 달래며 우정의 편지들을 교환하고 퇴소식을 끝으로 지난 3일 간의 수련회를 마쳤다.

3학년 김완열,이원모 기자

고민있나요? - 상담실 개소 -

우리 학교 2층 전산실 옆에 상담실이 개소했다. 우리의 상담을 맡아주시는 이미영 선생님께서는 3월 8일에 처음 오셔서 사랑방에 계시다가 5월 초에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셨다. 이곳에서는 방에 계시다가 5월 초에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셨다. 이곳에서는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이성 상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간단한 검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고민이 있다면 한번쯤 상담실을 찾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3학년 임은지 기자



모두 모두 힘을 합쳐
영차, 영차!

지난 4월 22, 23일 이틀 동안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함께 한 체육대회가 열렸다. 각 반에서는 자기 반의 선전을 다짐하며 응원준비를 하는 등 우승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첫날에는 축구와 농구 경기가 시작되어 대회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둘째 날에는 그 열기가 더욱 고조되어 줄다리기와 단체줄넘기 그리고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 계주를 했다. 계주가 시작되자 반 아이들은 나나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반을 응원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이틀 동안 학업에서 벗어나 체육 활동을 하며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반 친구들과의 우정도 쌓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3학년 이원모 기자



누가 누가 잘꾸미나

지난 4월 4일 토요일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번 달걀 꾸미기 대회를 위해 각 반 학생들은 부활을 의미하는 각각의 주제들을 정했으며, 각자의 교실에서 직접 준비해온 삶은 달걀들과 온갖 색종이들로 자신들의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들을 제작한 후에는 현관 앞 화단에 모두 모아 전시했으며, 그 멋진 작품들은 주변 시설들에 전달했다. 또한 그 중 우수한 작품들에게 상이 수여되었다.

3학년 김완열 기자



국악의 멋에 빠져 보아요

학기말 고사가 끝나고 방학을 며칠 앞둔 7월 12일 오후 우리 학교 강당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에립국악단의 협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궁중음악, 국악 관현악, 창작 국악과 같은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우리 음악을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대중 가요에 비해서는 낯설었지만 이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국악의 아름다움과 멋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국악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2학년 김태진 기자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 - 학생회장 선거 -



지난 7월 15일 여름 방학식날 강당에서 2학기부터 다음 년도 1학기까지 학생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다. 이번 투표는 2학년 학생 회장 투표와 부회장 후보가 짝을 이뤄 선거에 임하는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호 1번 회장 한상민 후보, 부회장 이희망 후보와 기호 2번 회장 정승하 후보, 부회장 최김민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1학년 부회장은 단일후보로 고윤근 학생이 출마하였다. 각 후보들은 정견 발표를 통해 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며, 1학년 부회장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견발표만 하였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 후 투표가 바로 진행되어 1,2,3

학년 모두 침착한 분위기에서 질서 있게 투표를 하였다. 개표결과 총 951표 중 500표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기호 2번 회장후보 정승하와 부회장후보 최김민이 회장단으로 선출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회장단은 개학 후 2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학생들의 큰 지지를 받고 선출된 만큼, 자신들의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좋은 리더가 되길 바란다.

2학년 박현아, 이지후기자

Interview

올해는 5분의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해성중학교의 가족이 되셨다. '은하수'에서는 신규, 전입, 승진 등 다양한 사유로 해성 가족이 되신 선생님들 중 3분의 선생님들을 찾아 뵙고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하였다. 이 인터뷰가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교감 선생님 인터뷰



1. 우리 해성 중학교에 새로 오시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주변 환경과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 경관에 잘 갖춰진 학교 시설이 좋았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성실, 실력이라는 교훈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교감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기획참모로서의 역할, 업무조정자로서의 역할, 상담자로서의 역할, 장학협의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 문서통제 역할 등입니다.

3. 새로 오시게 된 교감 선생님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나 사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쁨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분노와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합니다.

4.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중학생으로서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

① 평생을 함께 할 좋은 친구 만들 것 ② 책을 많이 읽을 것 ③ 열심히 공부 할 것

5. 교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해성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십니까?

사람에겐 누구나 자기에게 알맞은 빛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 빛깔과 향기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결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점차로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 내지 말고 자기의 삶을 삽시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책임질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첫째, 목표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 가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삶에 활기가 있으며 유혹도 멀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자 해야 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 계획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 없이 하는 것과 미리 계획을 세워 하는 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고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계획대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보내는 이 한 시간은 어른이 되어 열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꿈과 계획을 세웠어도 이를 실천할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한낱 허황된 꿈에 그치고 맙니다. 평소 체력단련에 힘써 인생에서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깨달아 아침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싫더라도 일찍 일어나 나름대로 세운 계획을 꼭 실천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굳은 의지력을 가진 건강한 학생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학년 김태진, 이지용 기자

윤소미 선생님 인터뷰



1. 음악가가 아닌 음악 선생님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어린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남고에 계시다가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있는 해성중에 오신 기분이 어떠한가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리고 낯설어 의사소통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학생들을 대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3. 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점이 있으세요?

학생들이 노래는 잘하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지금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음악시간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조금씩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클래식 음악을 거리낌 없이 벗 삼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해성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주세요.

항상 모든 일에 정직하고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박현아, 이지후 기자

김가람 선생님 인터뷰



1. 처음 교편을 잡으시고 이제 거의 한 학기를 보냈는데 소감은?

정신없이 빠르게 한 학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담임을 하면서, 즐겁고 예쁜 추억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한 학기였습니다.

2. 선생님의 어릴 적 장래희망과 영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원래부터도 영어를 좋아하고 외국 거주 경험이 있어서 외국 문학 번역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전해주는 것도 좋아서 영어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번역가를 했었다면, 지금의 예쁜 해성중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영어 교사가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교사가 되어 처음으로 우리 해성중학교에 오시면서 각오와 다짐은?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4년간 준비하고,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사를 거쳐 교사가 된 만큼 내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아낌없이 다 나눠주며, 학생들이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4. 해성인들의 모습을 보며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은?

아쉬운 점은 자신의 목표를 확고하게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큼니다. 목표를

잘 세워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좋은 점은 순수하고 웃음이 많아 보는 사람까지 즐겁게 만드는 친구들이 많은 점입니다.

5.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말 한마디는?

영어는 재밌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우기만 해야 하는 그런 지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나, 영어 소설책을 읽을 때, 할리우드 영화를 볼 때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가이드나 번역, 자막 없이 영어를 만나는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2학년 나경은, 박현아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단의 신발 자국들

'우리 그냥 여기서 신자.'

'그래, 뭐 나만 그러는 건 아닌데 뭘.'

학교 수업을 마칠 시간, 우리는 복도 계단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뭐, 어때', '아, 귀찮아 우리 그냥 여기서 신자' 등. 이처럼 대부분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잘못된 행동에 우리는 합리화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단순히 학교 건물을 더럽히는 것 이상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까?

'남들도 그러니까'라는 생각에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후배들에게 까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이어지기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다. 그런 우리의 배움터를 깨끗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더욱 애절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른 인성의 배움터에 자랑스러운 해성인으로서 보편화 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노력하는 품격있는 양심을 기대해본다.

3학년 양예찬 기자



삽화 -2학년 김태진 기자

기획취재

다시 거듭나고 있는 도심 속 문화 공간 ‘한옥 마을’

최근 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고 있다. 이들이 전주에 와서 반드시 보고 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옥 마을이다. 교통과 풍남동 일대에 약 700여채의 한옥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한옥 마을은 도심 속에 조성된 유일한 한옥 군락지이며, 현재 전라북도 and 전주시에 문화 관광 명소로 지정,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시, 주민, 대학, 산업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형성 및 산책로 조성 등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정작 전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은하수’에서는 이번 기획에 전통이 살아 있어 아름다운 공간인 ‘한옥 마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1930년을 전후로 형성된 한옥 마을은 경기전, 전동 성동, 오목대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적 제339호로 지정된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비롯하여

세종, 정종, 영조, 철종, 고종, 순조 등 6명의 임금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경기전은 조선 왕조의 봉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의 위상을 드러내는 곳인 동시에 ‘웅의 눈물’, ‘왕과 비’ 등 많은 사극의 촬영지이며, 동시에 전주 시민들이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전 맞은편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불리는 전동 성당이 위치하고 있다. 호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동 성당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 받고 있다.

경기전이 중심이 되는 한옥 마을은 조선 왕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오목대와 이목대는 태조 이성계의 조상인 목조가 살았던 곳에 지어진 고려 시대의 건축물이므로 고려 왕조와도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목대 쉼터에서는 매년 주민의 무병과 평온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리는데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이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한옥 마을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문화와 역사 체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을 비롯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여러 개 운영되고 있으며, 한옥 숙박 체험 공간과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되어 있어 지역민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한옥 마을을 관광할 수 있다. 20명 이상 단체라면 해설 투어를 신청하여 문화 해설사로부터 한옥 마을과 경기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8월부터 12월 초에 걸쳐 경기전과 은행로, 전주향교, 오목대를 둘러보며 한옥마을의 수백 년된 고목에 얹힌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는 ‘한옥마을 나무 이야기’라는 문화 탐방프로그램도 매주 세 차례씩 운영한다고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가족 또는 친구끼리 한옥 마을을 둘러보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빠져 보는 것을 어떨까?

2학년 박현아 기자

올 8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였던 이충로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이에 ‘은하수’에서는 이충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이셨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선생님 제자여서 행복했어요 - 이충로 선생님 퇴임기사 -



처음 우리가 이충로 선생님을 뵈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항상 웃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매우 인자하고 관대해 보이었다. 역시 첫 인상과 다르지 않게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도 항상 쾌활하시고 센스가 넘치셔서 한시도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하셨다. 가끔 수업시간 중 말썽부리는 아이들이 생기면 그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충고를,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주셨다.

수업 시간 중에는 교과서 속 내용은 물론이고, 교과 내용 외에도 생활영어, 미국예절 같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종종 알려주시곤 하셨다. 선생님께서 여행 중 경험으로서 알게 된 미국 문화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형식으로 재미나게 들려 주셨다. 또한 우리들에게 여행 중 찍어오신 사진을 통해 조금씩 우리들의 시야를 세계적으로 한 단계 넓혀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소설이나 나올 법한 그런 친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초콜릿내기, 초코 파이내기 등을 하며 아이들의 공부 의욕을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친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인자하신 모습으로, 수업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함께했다는 자체가 행복으로 남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3학년 임은지, 이아주 기자



한옥 마을 전경

느린 컴퓨터는 가라!

2010년 여름 우리 학교는 교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했다. 그동안 컴퓨터의 사양이 낮아 부팅 및 작동 시간이 오래 걸려 컴퓨터 활용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 교체 작업을 통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앞으로 원활한 컴퓨터 활용 수업이 기대된다.

2학년 이지웅 기자



바다의 별 기사단 <은하수> 4기 선발

2007년 창간된 우리 학교 신문 ‘바다의 별’이 신입기자단을 선발합니다. 9월에 치러질 4기 기자단 선발시험에 학교 신문 기사를 꿈꾸는 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해성만평

2학년 이지후 기자



이런 책 어때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책들을 ‘은하수’가 추천한다.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중1 소설 / 류대성, 신병준, 최은영 공편. 창비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라면 안다. 그동안 국정이었던 국어 교과서가 23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알아 두어야 할 작품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에 여러 출판사에서 교과서 속 작품을 소개하는 책을 편찬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분량에 읽을 마음이 잘 들지 않는 현실이다. 다른 교과서 속 작품을 읽고 싶지만 그 양이 부담스럽다면 창비에서 나온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홈로 슬라이딩 / 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 저. 미래인비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은 저자의 또다른 대표작이다. 열네살 소녀 조엘이 여자는 야구를 할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권한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 / 짐 코리건 저. 명진출판

컴퓨터계에는 빌 게이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사의 주역 스티브 잡스를 주목하라.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된 그가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거치며 성장한 후 애플사를 창업하게 되고, 그 후 겪는 고난과 재도약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다. 자신의 삶에 역할 모델을 필요로 한다면 이 책을 읽어 보자.